

교회를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쓰임 받은 70인 제자 야고보 -복음으로 여는 야고보서- 창세기 22:1-13, 야고보서 2:14-17

정윤돈 목사님

* **창22:1-13**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삼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갈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이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 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이 번제 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갈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 **약2:14-17** 내 형제들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답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지전능하셔서 그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되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갈 때 영원토록 행복한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순종하여 불신앙하여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공활히 여기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237, 5천 종족 살리는 선교의 축복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생명 건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모두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도전해야 할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교회를 살릴 수 없다. 죽은 믿음은 아무 것도 실천하지 않는 것이다. 중심이 중요하다. 아브라함의 중심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제일주의,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아들이었다. 가장 소중한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기쁜 마음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모리아로 출발했다. 그렇게 행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해 주세요. 지금 나는 그러한 믿음이 없습니다. 진도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실천이다. 이것이 발전해서 나중에는 행함이 되기 때문이다. 어떤 것을 행하기 전에 마음을 먹고 결정하지 않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작은 실천이라도 행하는 믿음이 성도와 교회를 살릴 수 있다. 내가 작은 것이라도 실천했는지 생각해 보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익한 순종과 복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내 의견은 필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계속 질문해야 한다. 아브라함은 신약성경에 보면 다시 살릴 줄을 알고 믿었다고 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다.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네.’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마귀는 여러분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울무, 함정을 판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어떤지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다. 거기에 합격하면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처럼 천대의 축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이 후대들에게 그러한 축복을 넘겨주어야 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 번 합격하면 후대들은 망하려고 해도 망하지 않는다.

야고보 사도는 사실적인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깨우치기 위해 야고보서를 기록하였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함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과 야고보 사도의 주장이 상충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오직 믿음’이란 인간들의 원죄에 대한 것이다. 영혼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주의 자들은 예수도 믿고 율법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 또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얻지만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복음화되어야 한다고 항상 주장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주님이 재림하실 그 날에 영광과 혼과 육이 흠 없이 보전되기를 원하신다. 야고보 사도도 성도와 교회를 지키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들과 특히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돌아온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적으로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것을 야고보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며 제자였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통하여 강조하고자 하는 두 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한다.

1. 첫 번째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버리라고 부탁한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는 자신의 가난함을 비판하거나 교만하거나 부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0절이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 말씀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공동번역성경의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가난한 형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는 것을 기뻐하고 부요한 형제는 하나님께서 낮추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아무리 부요한 사람이라도 들에 핀 꽃처럼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순간, 돈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다. 앞으로 응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비밀을 알아야 한다.

(2) 두 번째로, 교회를 살리는 70인 제자가 되려면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욕심을 버리지 말고 작은 일에 성실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겠다. 이렇게 할 때 모든 성도들과 램넛트들은 플랫폼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3) 야고보 사도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1장 26절에서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씀하였다. 또한 3장 1절에서 12절에서

도 말과 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특히, 3장 8절에 보면 혀를 잘못 사용하면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서 3장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 은혜로운 말, 그러면서도 지혜로운 말을 쓰도록 신중해야 하겠다.

(4) 그리고 교회에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였다. 야고보서 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 여겨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시라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번엔 예비증직자들이 세워졌다. 돈이 있거나 부하지 않다고 해서 임직을 받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다. 교회 안에서 내가 결정을 할 때 물질로 결정해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결정해야 한다.

(5) 다섯 번째로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 야고보 사도는 싸우는 근본원인에 대하여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모든 싸움은 싸우는 정욕(체질)과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세상 사람들은 싸워서 얻으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구하여 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달라야 한다.

(6) 다음으로는 성도들 간에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이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2. 두 번째에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행해야 할 행함이 있는 믿음의 실천리스트에 대하여 말씀드리기로 하겠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1) 첫 번째로 실천해야 할 미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이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 중 '초특급믿음'의 단계를 가장 초반부에 말씀하고 있다. "내 형제들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이 앞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제가 대학, 청년 때부터 문제가 닳았을 때마다 적용한 영적인 마술봉과 같은 말씀이고 그래서 제 영혼과 체질에 각인된 언약의 말씀이다.

(2) 그리스도인들은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참지 못하는 사람은 쓰임 받을 수 없다. 야고보서 1장 4절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하는 사람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

(3)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좋은 학벌이나 공부를 못했어도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쓰임 받을 수 있고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지혜를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번 WRC에서 공부하기 전 1분이라도 기도하라고 하셨다. 지금 응답이 안와도 나중에 다른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혜, 인격, 지식, 모든 것을 갖춘 사람으로 서게 된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공부와 함께 짧게 기도해 보

라.

(4) 그리스도인들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이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생각한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해 주세요.'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것이 시작이다.

(5)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다. 강단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마귀는 우리를 피해갈 것이다.

(6) 엘리야와 같은 영적서밋이 되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왜 엘리야의 이야기로 끝을 맺었을까. 야고보 사도는 버릴 것을 버리고, 행할 것을 조금이라도 행한다면 엘리야와 같은 무한대의 영성과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을 받아야만 성도와 교회를 지키고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70인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이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작은 것 하나만 실천해도 인생이 달라진다. 버릴 것을 정말로 버려라. 당장 실천이 안 되도 마음만 먹어도 된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 살리고 앞으로 237 나라를 살려야 할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플랫폼, 파수망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도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다.

1. Covenant, 언약이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행함이 있는 사실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겠다. 어떤 것을 행하기 전에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제일주의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라. 이 때 언약적 축복의 시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교회를 살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우리들이 만약 24시간 동안 교회를 살리고 지키기 위해서 행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조금만 실천해도 언약적 축복의 주역이 될 것이다.

5. Practice, 지속적인 실천이다. 한 가지라도 지속적으로 실천해도 엘리야와 같은 기적적인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오직복음, 완전복음, 영원한 복음을 세팅하기 위해 작은 실천을 지속하여 미래와 교회를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응답을 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 되기를 기도하겠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소중한 응답의, 축복의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체질이 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일과 후대와 램뎀트, 교회를 살리는 그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보좌화된 그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